사기혐의 변호사에 특혜 준 법원

제주지법 지난 11일 변호사 선고공판 비공개 진행
법조계 "헌법 위배… 피고인 명예 판사가 지켜준 꼴"
지법 "측은한 마음에 비공개… 재발방지 노력할 것"

제주지방법원이 특정 피고인에게 '비공개 선고'라는 특혜를 제공해 논란을 낳고 있다.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검사 출신 유명 변호사 얘기다.

지난 11일 제주법원 A판사가 심리하는 법정에서 난데 없이 "퇴장하라"는 목소리가 법정경위의 입에서 나왔다. 사유를 물으니, "(곧 진행되는 선고공판을) 판사님이 비공개하기로 결정했다"는 답이 돌아왔다.

제주법원과 법조계 등에 취재를 진행한 결과 해당 재판은 도내에서 유력 정치인으로 활동한 이력이 있는 검사 출신 B변호사가 '피고인'으로 지정된 사기 사건이었다.

방청객 없이 검사와 판사만 있는 법정에서 B변호사는 지인에게 수억원을 빌렸다 갚지 않은 혐의(사기)가 인정돼 벌금 1000만원을 선고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문제는 A판사의 비공개 결정이 특혜를 넘어 '위헌' 논란까지 제기된다는 점이다. '심리'는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는 법률이 존재하지만, '선고' 만큼은 비공개로 진행할 근거 자체가 없기 때문이다. 심지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도 선고는 물론 심리까지 공개된 바 있다.

헌법에 따르면 재판 중 선고가 아닌 심리의 경우에만 국한해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안녕질서를 방해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할 염려가 있을 때 법원의 결정으로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했다. 즉 '국가의 안전보장·안녕질서 방해·선량한 풍속 저해'의 사유로 심리 자체는 비공개할 수 있지만, '선고' 만큼은 비공개로 진행할 근거가 없는 것이다. 나아가 법원조직법에서는 '(심리를) 비공개 결정할 경우에는 이유를 밝혀야 한다'고까지 정하고 있다.

아울러 비공개 결정도 피고인을 위한 것이 아닌 '피해자'를 위한 것이다. 이와 관련 형사소송법과 성폭력처벌법 등에서 비공개 심리를 규정하고 있는데, 모두 피해자의 사생활이나 신변보호를 위한 것으로 제한하고 있다.

법무법인 해마루 소속 임재성 변호사는 "판결 선고를 비공개하는 것은 근거가 없어 법률 위반일 뿐만 아니라 공개재판원칙이라는 헌법을 위배한 헌법 위반"이라며 "(B변호사의) '사회적 지위'라는 것이 국가안전보장, 선량한 풍속, 피해자의 사생활 등 어디에도 해당하는 사항이 없다. 즉 피고인이 가진 일말의 사회적 영향력을 판사가 지켜주기 위해 최선을 다한 것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제주법원 관계자는 "A변호사가 따로 비공개를 요청하지 않았다. 판사가 스스로 판단한 것"이라며 "A변호사는 제주사회에서 익히 알고 있는 변호사다. 다른 피고인들과 나란히 세우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 선고 상황 만이라도 덜 창피를 사게 하자는 약간의 측은함도 존재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돌이켜 보니 비공개 결정이 적절치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며 "향후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사건을 기소한 제주검찰은 B변호사에 대한 '징계 개시'를 대한변호사협회에 신청했다.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지난 14일 설경을 보려는 차들이 몰리면서 교통체증이 발생한 1100도로. 이태윤기자

한라산에 눈만 내리면…

눈 구경 인파 1100고지 몰려
갓길·도로 불법주차로 몸살
운전자 "도로에 갇혀" 분통
교통체증 해결 목소리 비등

지난주말 설경을 보기 위해 도민과 관광객들이 한라산 일대로 몰리며 도로 곳곳 교통혼잡이 빚어졌다. 더욱이 한라산 도로 일대 교통난은 매년 겨울철 되풀이 되고 있는 등 근본적인 개선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지난 14일 눈이 쌓인 한라산 1100고지 휴게소 주차장과 인근 도로에는 설경을 즐기려는 도민·관광객들로 북적였다. 1100고지 휴게소 주차장은 이미 만차를 이룬 상황이었고, 인근 갓길에는 차량들이 수백여m 줄지어 주차돼 있었다.

이 때문에 도로 폭이 좁아지면서 교통체증이 발생하고 있었는데, 통행하는 차량들은 일정 구간에서 10~20분 도로에 갇히는 상황도 벌어졌다.

특히 설경을 좀 더 가까이 즐기려고 차량에서 내린 도민·관광객은 보행 공간이 없어 차도를 이용해 걸어가면서 보행자와 차량이 뒤엉키는 위험한 상황도 연출됐다.

같은날 1100고지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어리목입구 교차로 인근 도로에도 차량 통행과 주차 상황은 비슷했고, 제1산록도로변 곳곳에는 눈썰매를 타러온 방문객들의 차량들이 도로 한쪽을 점령하면서 주변을 오가는 차량들이 거북이 운행을 해야 했다.

때문에 겨울철 마다 반복되는 한라산 교통난으로 보행자 사고도 우려되고 있는 등 개선 방안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100고지 휴게소에서 만난 관광객 김모(32)씨는 "갓길에 빽빽하게 주차된 차량들로 걸을 수 있는 공간이 없어 차도를 이용해 정체된 차량 사이를 비집고 다닐 수 밖에 없었다"면서 "혹시나 모를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개선 방안이 시급해 보인다"고 말했다.

도민 A씨는 "1100도로를 통해 서귀포 지역으로 넘어가고 있었는데, 차량이 이렇게 막힐 줄은 몰랐다"면서 "또 휴게소 인근 도로 갓길에 주차된 차량 사이에서 갑자기 사람이 튀어나와 깜짝 놀랐다"고 전했다.

이태윤기자 lty9456@ihalla.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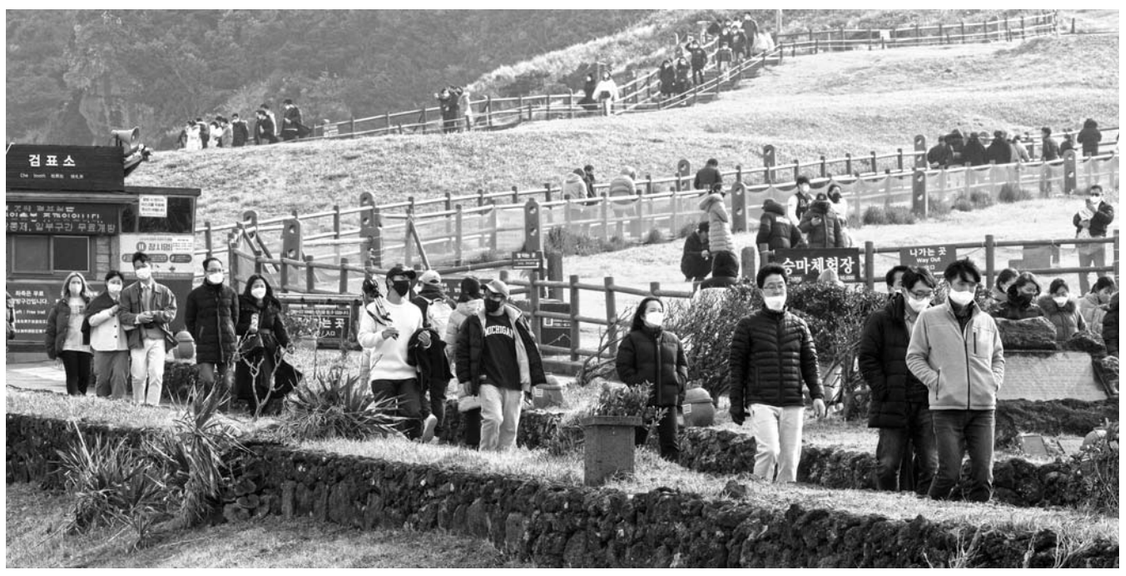
묻지마 상습폭행 30대 실형

술에 취해 다른 손님에게 시비를 걸고 주먹까지 휘두른 3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누범기간에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는 것이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김연경 부장판사는 특수상해와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35)씨에게 징역 1년 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지난 14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2월 17일 오전 2시 12분쯤 도내 한 주점에서 다른 손님인 A씨와 B씨에게 욕을 하며 시비를 걸고 A씨에게 주먹을 휘두른 혐의로 기소됐다. 이어 A씨를 향해 던진 맥주병이 벽면에 부딪혀 깨지면서 그 파편에 A씨 뒷머리에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도 가했다.

김 부장판사는 "특수상해죄로 누범기간에 같은 범행을 저지른 점, 일면식 없던 사람을 상대로 폭력범죄를 저질러 처벌받은 전력이 수차례 있는 점을 고려했다"며 실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송은범기자



성산일출봉 '문전성시' 16일 추운 겨울날씨에도 세계자연유산인 성산일출봉을 찾는 관광객들의 발걸음이 이어졌다. 이상국기자

치매노인 학대 요양보호사 검찰 송치

치매노인을 학대해 상해를 입힌 요양보호사 A씨가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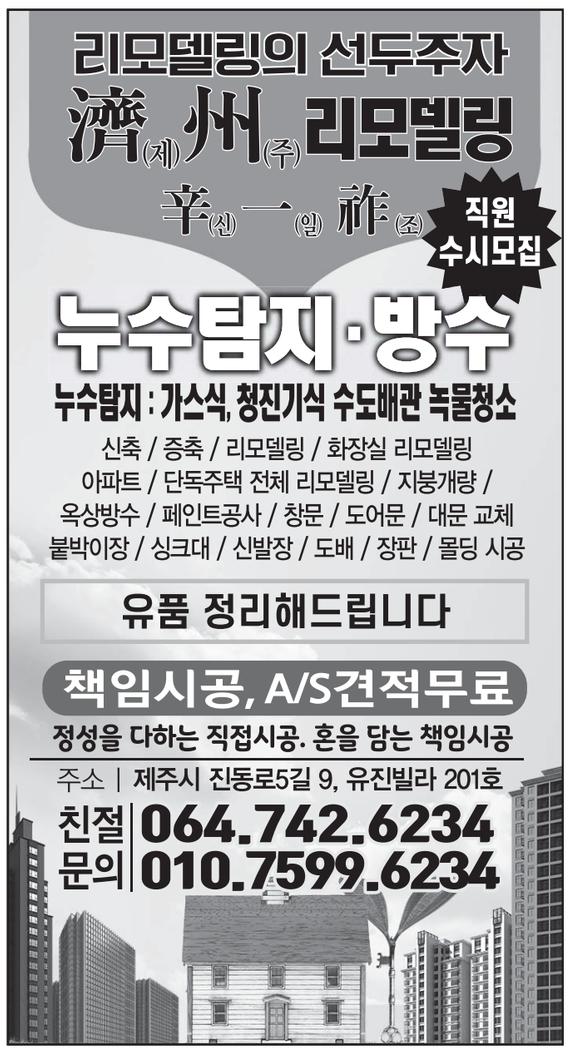
16일 서귀포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9월 12일 한 노인요양원에서 80대 어르신 B씨가 배변을 실수했다며 바닥에 내동댕이쳐 갈비뼈 골절상을 입히는 등 전치 6주의 부상을 입힌 혐의다.

B씨의 가족들은 해당 요양원의 폐쇄회로(CC)TV를 확인해 학대 정황을 발견하고 서귀포시 노인보호전문기관에 신고했다. 이에 기관은 현장조사 후 학대판정을 내려 서귀포시에 통보했고, 시는 이를 경찰에 고발조치했다.

A씨는 현재 해당 요양원으로부터 해임된 상태다. 백금탁기자

원룸 화재… 2000만원대 피해

제주시의 한 원룸에서 화재가 발생해 2000여만원의 재산피해가 났다.

15일 제주소방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0시54분쯤 제주시 이도2동의 4층짜리 다가구주택 3층에서 불이 나 출동한 소방당국에 의해 8분만에 모두 진화됐다.

불은 주변을 지나던 한 남성이 연기 등을 목격하고 119에 신고했으며, 원룸 내부 출입구 인근에서 시작된 불이 집안 전체로 번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원룸 거주자 A씨는 연기를 흡입해 병원으로 이송됐다. 김도영기자